

●연중 제 32주일 강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한동안 곰곰이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하늘에 무지개가 커다란 활을 그리며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아! 어쩌면 부활의 모습도 저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비가 그친 뒤 해가 비칠 때 물방울과 햇빛의 합작품으로 뜨는 무지개. 그런데 무지개는 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 하고, 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야 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당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요? 나에게서는 붉은빛을 반사해 준 물방울이 좀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노란빛이나 푸른빛을 반사해 주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모든 이가 똑같이 체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즉시 알아본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적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의 삶의 차원은 다르고 그 결과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복음에 등장하는 사두가이들은 대조적입니다. 우선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어머니와 함께 체포된 일곱 형제가 율법에서 금지하는 돼지고기를 먹을 것을 강요당하자 “우리는 조상들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소”(2마카 7,2),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소.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이 없소.”(7,14) 하며 차례로 장엄하게 신앙을 증거하며 순교하였습니다. 반면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로 든 일곱 형제와 한 아내의 이야기는 그 내용이 참 빈약합니다. 그저 자손 생산의 의무에 급급하다가 죽습니다. 두 번째,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양쪽 모두 모세의 율법

을 충실히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만, 어머니와 일곱 아들한테서는 ‘하느님을 만유 위에 공경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고 이를 스스로 충실하게 지키려는 자유가 느껴지나 사두가이 사람들한테서는 율법에 대한 의무감만 느껴집니다. 이때 율법은 무거운 짐이 되고, 율법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이야기에서 삶의 모습은 죽음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합니다. 죽음을 통해 그 사람의 삶 전부를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절에서 주지스님이 설법을 하는데 고양이와 분심을 일으키자 설법시간에는 고양이를 묶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설법 때는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놓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보이지 않으면 찾아와서라도 묶어놓았던 것입니다. 어떤 제도가 처음 마련될 당시의 상황과 목적을 망각한다면 그 제도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마르 2,27) 하신 것처럼 성경의 말씀도 그렇겠습니다. 내용은 들어 알지만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愚)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병행구절인 마르코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두가이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마르 12,24) 하고 말씀하십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20,38) 사두가이들은 소수였지만 특권층을 이루고 로마에 결탁하여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사람들이었기에 내세에 대한 갈망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편협하고 보수적이어서 모세 율법 이외의 다른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는 바로 그 모세의 떨기나무를 인용하시며 하느님은 산 이들의 하느님이심을 천명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쁜 소식은 죽은 뒤에 삶이 있다는 것과 부활

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천사들과 같아진다는 것, 그런 존재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또 하느님의 자녀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이렇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1코린 15,13--14) “죽은 이들이 전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늘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페소에서 이를테면 맹수와 싸웠다고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야 ‘내일이면 죽을 몸 먹고 마십시오.’”(1코린 15,29--32) 할 것이라고. 또 부활 때 완성되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요한 3,3) 나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좁은 나라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라자로, 나인의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목숨은 살아도 삶의 차원은 죽은 자와 같을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정 세라피아 수녀(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 11월 위령성월 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이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 당신의 말씀에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 기도합시다.
-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11월 사목회의
오늘 미사후: 이동기 형제집
(216 Westhollow Court/ 519 884 4870)

● 바뇌기도회 모임
11월 14일(수) 오후 7시30분 (이동기 형제집)

● 정기 울드레아 모임
11월 18일 미사후

● 첫영성체 교리반
▶대상: 3 학년 이상 어린이
▶수업기간:11월25일 부터 부활 전주 까지
▶수업시간:매 주일 미사전 2시 40분 부터
▶문의: 장연희 세실리아 자매(519 580 1115)

● 11월 구역모임
▶1구역 11월 18일(일) 미사후 유무열형제집
▶2구역 11월 17일(토) 오후7시 노재현형제집
▶4구역 11월 23일(금) 오후7시 정덕형제집
▶5구역 11월 24일(토) 오후7시 구분우형제집
▶6구역 11월 24일(토) 오후7시 부승민형제집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
▶개별 가입이 원만치 않은 교우 여러분은 서기(한택중 형제)에게 주시면 일괄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클럽주소는 <http://club.catholic.or.kr/seobunews> 입니다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성서 공부 의문사항 신부님 이메일주소 koandl92@hanmail.net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 주간 전례
▶11월13일(화) 오후 8시, 연중 제 32주간화요일
▶11월15일(목) 낮 12시, 연중 제 32주간목요일
▶11월15일(목) 오후 8시, 연중 제 32주간목요일
▶11월17일(토) 낮 12시, 성녀엘리사벳기념미사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미사와 기도를 바쳐주십시오. 위령성월에는 천국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한분이라도 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오늘은 성소후원회 회비 납부하는 날입니다.

관심이란

만약 그대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어깨 위에 소리없이 내려앉는 한 점 먼지에게까지도 지대한 관심을 부여하라.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하찮은 요소까지도 지대한 관심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의 계단으로 오르는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 이외수의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중에서 -

미사전례

해설 이정숙 | 차주 해설 이우원

화답송 | 저의 임금이신 주 하느님, 영원히 주님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죽은 이들의 만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비나이다.
◎알렐루야

성가

입당 (227)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봉헌 (512) 주여 우리는 지금
성체 (163) 생명의 성체여
퇴장 (34)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독서

11월 11일 노재현 노정은
11월 18일 노원균 노숙희
11월 25일 이명희 이상희

봉헌

11월 11일 김직현 김인자
11월 18일 노재현 노정은
11월 25일 노원균 노숙희

복사

11월 11일 원영 현재
11월 18일 경은 지현
11월 25일 하람 한힘

2007년 11월 4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961.00
교무금 :	\$ 1170.00
감사헌금:	\$ 100.00
Total:	<u>\$ 2231.00</u>

2007-45 2007. 11. 11.
연중 제 32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성사 미사 전·후
병자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신부 고원 일 안드레아